

직업계고, 산업안전교육 강화

교육부, '성공적인 직업생활' 정규 과목 편성 직업계고 3학년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노동인권·산업안전보건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교육부는 특성화고·미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등 직업계고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을 직업계고 학생 정규 교육과정에 도입한다. 직업계고 학생이 공통으로 배우게 되는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은 근로관계법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대대적으로 편성돼 학생들이 예비직업인으로서 노동인권 관련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인 6월 말부터 9월까지 전국 587

개 직업계고 고등학교를 방문해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전국 27개 안전보건공단 지사의 전문 강사가 관할 지역 학교를 방문해 직군별 재해사례와 산재발생 시 처리 절차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온라인 필수 교육과정도 운영된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포함한 전체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은 교육부의 위탁으로 고용노동연수원이 개설한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은 현장 사례 중심으로 20여분씩 15차시로 구성됐다.

직업계고 교사에 대한 산업안전보

건과 노동인권 연수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교사들의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박2일 집합연수를 대폭 확대한다.

2012년 500여명으로 시작된 집합연수 대상은 2017년 3000명,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6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8월부터 교사 원격연수 과정을 15차시 분량으로 개설해 중앙교육연수원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교육연수원과 연계해 운영한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에 진출하기 전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 관련 소양을 충분히 갖추 수 있길 기대한다"며 "특히 학교의 예비직업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 관련 교육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교사 연수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뉴스

전북대 고창캠퍼스, 지역민 평생교육 꽃피우다

맞춤형 과정 통해 '입소문' 신청자 북새통... 교육과정 만족도 높아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와 고창군이 협력해 전북대 고창캠퍼스에서 이뤄지고 있는 평생교육과정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전북대학교와 고창군이 협력해 전북대 고창캠퍼스에서 이뤄지고 있는 평생교육과정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로 9년째 이어지고 있는 고창지역 평생교육 과정은 다양한 과목을 통해 배움에 목마른 지역민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뿐 아니라 대학과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상생과 지역민 복지라는 물꼬를 제시해주고 있어 시시하는 바가 크다.

11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4월 고창캠퍼스에 개강한 평생학습 아카데미는 11개 과정에 330여 명의 지역민이 참여하고 있다. 매년 지역민들을 위한 맞춤형 과정을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정원을 훨씬 상회하여 신청자가 몰리는 등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과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고창군 마을 디자인을 위한 마스터플랜 과정과 악용물자원활용지도자 2급, 천연염색지도사 3급 등 지역 특화 과정에서부터 드론 등 취업·직업 능력 향상 과정, 댄스나 민요, 서예 등 취미·교양 과정 등 벽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교육이 가득하다.

특히, 전북대와 고창군은 교육과정을 통해 민간자격증 취득이나 취업, 창업까지 연계되도록 지원하고, 담당 강사 역시 수시 상담을

통해 수강생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등 지역민들이 교육을 통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게 적극 돕고 있다.

수년간 교육이 이어오면서 고창군에서는 평생학습 아카데미 원우회도 꾸려질 만큼 인적네트워크도 넓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강준구 수강생 원우회장은 "고창군과 전북대의 지원으로 도서벽지 지역에서는 쉽게 마주할 수 없는 교육과정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창군 평생학습 아카데미가 지역민들에게 배움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단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진 전북대 평생교육원장은 "고창군과 우리 평생교육원이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매우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전북 중·고생 10명중 3명 "아침밥 안먹어"

농진청, 중고생 225명 대상 식미평가회 열어

아침밥 먹지 않는 이유 "시간이 없어서"가 59%

전북 지역 중고등학생 10명중 3명이 아침밥을 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은 전북 혁신도시 중고생 225명을 대상으로 7차례 식미평가회를 열어 식습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식미평가회는 성장기 청소년들의 식습관을 파악하고 쌀 섭취를 통한 영양 상태를 바로 잡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 10명 중 3명은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침밥을 먹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59%)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밥맛이 없어서'(28%), '체중감량을 위해'(4%)라는 아침밥을 거른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러나 아침밥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8%에 달해 학부모와 학교·정부 측의 관심과 지원이 따라준다면 아침밥을 먹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농진청은 보고 있다.

행사 때 농진청이 개발해 전북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는 고품질 쌀 '신동진'과 '수광' 품종으로 각각 밥을 지어 밥맛도 비교했다. 그 결과 신동진은 '밥맛'(72%)에서, 수광은 '집합성'(64%)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동진 품종은 일반 쌀에 비해 쌀알이 1.3배 크고 밥맛이 좋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수광 역시 밥맛이 좋고 병해에 강하다.

이철호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육종과장은 "청소년이 선호하는 밥맛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더 좋은 쌀을 개발·홍보해 쌀 소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국 초중고 1200개교 진로교육 현황 조사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 1200개교를 대상으로 2018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1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온라인 웹 사이트를 통해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초·중·고 1200개교 학교관리자(교장·교감), 진로전담교사, 학생, 학부모 등 5만8000명이다. 조사 내용은 학교 진로교육 환경(인력·예산·공간), 프로그램, 진로전담교사 역량 개발, 진로교육 만족도 및 요구 사항 등 총 158개 항목이다.

올해는 학교 진로교육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운영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새 문항이 신설됐다. 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 시 학생과 학부모 의견 수렴,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취약계층의 특성과 요구 고려 여부 등을 묻

는 문항이다.

조사결과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초·중등 진로교육 정책 수립과 관련 연구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진로교육 정책 수립 시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고민하고 설계해 꿈을 이룰 수 있는 학교 진로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

보건교사 미배치교 학교성교육 전문강사 순회교육

전라북도교육청은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성교육 전문강사 14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300여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진행하여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성교육 지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발달수준에 맞춘 3시간 분량의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춘기의 신체변화, 사춘기의 심리변화,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청소년 성심리 발달과 기질, '미투(me too)'를 활용한 성인자녀인권교육 등 다양한 내용을 체험형, 토론형 강의식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바른 성 가치관 및 성인권 의식 함양으로 성적주체로서 자기보호 및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과통합 성교육을 학년별 연간 15차시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모든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교육 전문강사의 학교 현장 이해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총 6회의 사전 협의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30시간 온라인 연수를 지원했다"고 말하고 "수시 현장 컨설팅을 통한 수업의 질 관리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원광대, 창업아이템사업화 청렴 선언·협약식

원광대학교 총장 김도중(중) 창업지원단은 올해 창업아이템사업화 지원사업 1차 선정자를 대상으로 '청렴 선언 및 협약식'을 열었다.

지난 7일 창업지원단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부지원금이 최대 1억 원인 창업아이템사업화 공모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예비)창업자 18개 팀이 참석했다.

창업자 대표로 정원석 (주)렘투에

스 대표이사(가) 협약 기간 동안 청렴한 기업이 정신으로 모범적인 창업사업화 수행할 것을 선언했다.

백현기 창업지원단장은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사업화 협약 체결은 창업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글로벌 시장개척단, 전북 투자 IR 로드쇼, 부자 IR BOOT캠프 등 원광대 창업지원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유망 중

소기업으로 도약할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1차로 선정된 기업들은 사업화 지원비 9억 원을 비롯해 창업선도대학이 보유한 기자재 및 창업지원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 고도화를 위한 창업교육·멘토링 등도 상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원광대 창업지원단은 오는 7월 7개 팀을 추가로 선정하는 2018년 창업아이템사업화 (예비)창업자 2차 모집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산=우병희기자

